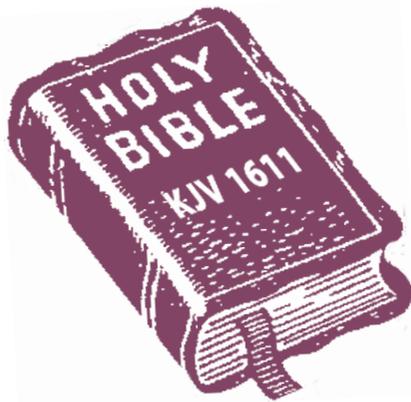


사랑침례교회 소개 및 안내

(2022. 6)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사랑침례교회

Charity Baptist Church

사랑침례교회 가이드

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려는 모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함
2.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
3.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줄 이 책자는 방문자들이 목회 철학과 교회의 비전 및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또 회원이 되기 원하는 분들이 회원으로 정착하여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조직, 교회 생활 Q&A, 교리, 철학, 문화, 침례성도들의 특징 및 유산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 홈페이지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상세 검색에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으면 찾고자 하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뜻하는 ‘영혼의 자유’(Soul liberty)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방종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역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를 ‘홈 처치’(Home church)로 정하시기 전에 우선 이 책자와 헌법 그리고 ‘필수 설교/강해 40선’을 들으시면서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회원 가입 절차를 밝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한 데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가까운 교회가 되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랑침례교회의 일원이 되기 원하는 분들은 지나 리더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침례교회 목사(패스터) 정동수

1. 교회 역사

1. 교회 시작 배경

사랑침례교회는 2008년 3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디모데 스쿨'의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디모데 스쿨'은 예배 모임이 아니라 주중 저녁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남쪽에 30평의 1층 상가가 마련되자 디모데 스쿨에 모인 몇 사람들 가운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8년 5월부터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 처음 1년(2008.5-2009.4)

2008년 5월 4일 처음 예배를 드린 인원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9명이었습니다. 이때 디모데 스쿨에서는 2008년 1학기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였고, 2학기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가을부터는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도들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2월에 예배 참석 인원이 45명을 넘어서면서 장소가 비좁아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진:
첫 예배당과 디모데스쿨

2. 그다음 3년(2009.4-2012.3)

2009년 4월 역시 송내역 근처에 있는 건물의 5층으로 이사하였고 여기서 2009년 5월 3일에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회원 가입을 하고 교회를 위해 일할 집사 형제들도 선출하여 서로를 섬기는 교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성막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2010년 4월에 다시 예배당이 비좁게 되어 역시 송내역 옆에 있는 건물의 3-4층을 얻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진리를 찾으며 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2년 뒤에는 예배 참석 인원이 250명을 넘어 또다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내역 부근에서는 5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구할 수 없고 또 있어도 매월 1,5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여러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두 분이 인천 소래포구 옆 논현동에 신축 상가 12층과 11층 반(총 분양 평수 525평)을 직접 구매한 뒤 교회가 은행 이자만 내면서 사용하다가 여유가 되면 후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3. 그다음 6년(2012년 4월부터 2018년 8월): 소래 예배당

저희는 2012년 4월에 소래 예배당으로 이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2013년에 예레미야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가을부터는 교회 성도들의 성경 지식 함양을 위해 사랑침례교회 신학원(성경학교)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한 뒤 1년 반이 지난 2013년 10월에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동일한 두 분이 11층 반(175평)을 구매하여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교회가 쓸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이후로 12층 전체를 예배실로, 11층은 교육실과 교제실로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12층 예배실에는 650석이 있었고 주일에는 53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부모와 아이들이 오전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동일한 설교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예배드리는 자세와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는 산교육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저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유지할 것입니다.

4. 2018년 9월 이후~현재: 서창 캠퍼스 예배당

2016년 들어서면서 소래 예배당에 600명 이상이 모이자 장래를 위해 자체 건물을 짓고 이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IC에서 3분 거리에 있는 1,000평의 종교 부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2)를 LH 공사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그 뒤 자금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진행하여 최종 안을 결정한 뒤 2017년 8월 13일에 기공식을 가졌고 1년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서창 예배당은 총 1,800명을 수용하는 '연건평 1,500평의 건물'이며 우리는 2018년 9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창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저희는 최저 가격으로 최적의 예배 및 교육 그리고 교제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았고 또 인천시가 해운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면부의 벽체 및 주 탑은 인천시의 상징인 운송 컨테이너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미디어 강당 포함 200여 평을 증축하였습니다.

2. 교회 조직

저희 교회는 미국침례교회들처럼 디모데전서 3장에 의거하여 목사¹⁾와 집사만 교회의 직무 수행자(Officers)라고 믿습니다. 교회 조직은 크게 집사회, 지역 인도자 모임, 섬김 부서 그리고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사회

집사회는 교회 재정과 연간 일정 등의 큰일만 다룹니다. 실제로 섬기고 일하는 것은 다 섬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제는 지역 조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집사회는 교회의 공적 기관으로 대내외적 큰 문제가 있을 때에만 외적으로 활동하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집사들의 상당수가 섬김 조직과 지역 및 다른 기관의 리더가 됩니다.

집사와 다음에 소개할 지역 인도자는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임 의사를 물어 다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사정과 영혼의 자유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집사와 지역 인도자는 부부가 합심해서 섬겨야 하는 직분입니다. 다음은 집사와 관련된 것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집사라는 말은 ‘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의 종’입니다(상전이 아님). 따라서 집사 부부는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가진 재능과 재물 등으로 신실하게 목사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이분들의 자발적인 섬김의 직무를 감사히 여기고 이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2. 교회 안에서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또 집사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호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본인도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 침례교회들에서 지금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3. 이처럼 집사 직무 수행자를 ‘집사님’이 아니라 ‘형제님’으로 부르면 그분이 다음 해에 사정이 있어 하지 못해도 여전히 호칭은 변함없이 ‘형제님’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으로 부르게 되면 그만두게 될 때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성도님들도 그만두게 된 그분을 여전히 ‘집사님’으로 부르지 ‘형제님’으로 부를지 애매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달리 한시적 임명직인 집사는 미국 교회에서도 ‘집사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나 다른 분들이 집사 형제님을 다른 교회 목사나 형제들에게 소개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집사 홍길동 형제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홍길동 형제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4. 이와 관련해서 목사의 경우 목사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분들은 ‘정 형제님’이라

1) 목사와 감독 그리고 장로는 같은 직무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이다(딤후3장, 딤후1장).



서창 캠퍼스 예비당(2018년 9월 완공)

고 불러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정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 좋습니다. 또 목사 형제의 아내는 목사의 아내임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를 뿐, 계급적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 집사의 의무

- (1)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부부가 주일 오전과 오후 공예배와 금요 모임 그리고 토요 기도회에 모두 참석한다.
- (2) 주일 오전에는 10시까지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오후 예배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 남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 (3)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한다. 특별히 건축을 위한 풀링에 힘껏 참여한다.

6.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여 명이 집사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7. 집사 대표는 두지 않되 집사회에서 재정부를 담당하신 형제님께서 분기마다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알리며 집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8. 또한 2014년부터는 집사 형제님들 중에서 한 분이 침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아닌 형제들 중에서도 교회의 임명을 받으면 얼마든지 침례를 줄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미국 독립침례교회의 경우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목사만 침례를 주는 줄로 생각하기에 ‘이런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해 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도자 모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에 분포하므로 현재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새로 오시는 분들과 기존 멤버들이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지역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인도자들은 지역 내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지역 인도자의 의무 역시 집사의 의무와 동일합니다. 다만 서울, 분당, 구리, 일산 등 먼 곳에 거주하는 인도자의 경우 금요 모임은 못 오더라도 토요 기도 모임은 부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 |
|---|
| (1) 부천/부평/인천서구, (2) 시흥/안산/광명, (3) 구리/남양주, (4) 분당/용인
(5) 안양/수원, (6) 인천 남동구/미추홀구, (7) 인천 연수구/중구, (8) 서울 강서강북
(9) 서울 강동강남, (10) 고양/김포/파주, (11) 먼 곳 |
|---|

지역 모임의 경우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지역에서 모임을 갖거나, 주일 오전 예배 후 점심시간에 한 팀씩 돌아가며 두 달에 한 번 커피 교제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 모임은 기존 교회의 구역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며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역 성도들과의 교제와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지역 모임의 목적입니다. 또한 체육대회나 성경퀴즈대회 등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 지역 모임을 기준으로 팀을 나누어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원이 늘면 지역 모임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모임 안에 여러 개의 소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섬김 부서

실제로 교회 일은 거의 다 섬김 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섬김 부서는 교회의 손과 발입니다.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피를 나르는 역할을 하는 섬김 부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에는 다음과 같은 섬김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 진행, 지역 관리, 미디어 선교, 방송실, 치량/주차관리, 서점/도서관, 시설관리, 애경사, 음악, 주방 섬김 등
--

예배 섬김: 예배 및 교회 행사 주관

- 매 분기별로 기도 및 간증 순서를 배포한다.

- 순서는 담임 목사와 담당자가 정하고 선정 후에는 예배 섬김부에서 관리한다.
- 일정이 맞지 않아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예배 섬김부에 사전 연락하고 또 간증하기를 원하는 분은 예배 섬김부에 신청한다.
- 매분기에 두 번 주의 만찬이 있다: 1분기(1월, 3월), 2분기(4월, 6월), 3분기(7월, 9월), 4분기(10월, 12월) 둘째 주에 시행함.
- 주의 만찬은 침례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주신 규례이다. 주의 만찬의 요소는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즙(포도주스)이다.
- 2-3개월에 한 번씩 오후 모임 시간에 연령별이나 지역별 혹은 제비를 뽑아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 이때 형식은 자유롭게 하며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자기를 소개하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 8월에는 한여름 음악회를 열고 12월에는 연례 음악회를 가진다.
- 3-4개월에 한 번꼴로 침례를 주며 침례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을 받는다.
- 여름에는 원하는 부서별로 휴양회를 갖는다.
- 연 1회 특정 주일 오후에 가까운 곳에서 친목과 휴식시간을 갖는다.
- 12월 31일이 화, 수, 목, 금요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성탄절 등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 교회 안에 십자가 등의 어떤 형상도 두지 않는다.

지역 관리

- 필요에 따라 집사나 지역 인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전체 모임 및 성도들 현황을 파악하여 성도들의 필요를 교회와 목사에게 알린다.

미디어 선교

- CD 제작, 소책자 발간,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교를 담당한다.
- 미디어 선교에 필요한 헌금은 일 년에 한 번 특별히 따로 하고 있다. 미디어 헌금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진행한다.
- 모금한 금액은 교회 재정과는 별도로 관리되어 CD 제작과 소책자 발간, 미디어 홍보, 목회자 무료 성경 배송 등에 사용되며, 국내와 전 세계의 필요한 곳에 발송 작업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방송실

- 설교 녹화,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마이크/스피커 시설을 관리한다.

주차관리/안전관리

- 주일 아침에 교회 앞에서 차량 주차를 돕는다.
- 점심시간에 교회 건물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을 관리한다. 이 일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봉사한다.

서점/도서관

- 본당 뒤편에 있는 서점은 교회 도서관의 책을 대여해 주며 성경 및 신앙 도서를 판매한다.
-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는 서로 독립적인 별개 기관이다.

시설관리

- 교회 건물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한다.

애경사

- 결혼, 초상 등 애경사가 발생할 때에 섬기는 일을 한다.

음악

- 찬양대, 특송, 음악회, 오케스트라 등 교회의 모든 음악을 총괄한다.

주방 섬김

- 두세 달에 한 번씩 조를 짜서 돌아가며 식사와 설거지 봉사를 한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해의 주방장 자매님에게 신청하면 된다.
- 현재 교회에서는 대다수 성도들이 참여하는 점심 식사와 150-200명이 참여하는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

집사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원회, 재산 관리 위원회, 회원 위원회

재정 위원회

- 집사들로 구성된 재정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여 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분기마다 회중에게 재정을 보고한다.

재산 관리 위원회

- 재산 관리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회원 위원회

- 회원 위원회는 침례 대상자와 교회 회원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와 면담하여 교회의 믿음에 대한 이해와 구원 여부를 확인하고 또 교회 안에서 회원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권면과 징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교회 직원

2018년에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교회 행정 사무를 보는 전임 사무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녀들 교육 및 미디어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두려고 합니다. 물론 부목사/교육 목사 등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정하여 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부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서가 교회 학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전에는 학생들도 모두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교회 학교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특성상 부모가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은 오후에 교회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부: 5~7세, 유년부: 초등학교 1~3학년
초등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중학생, 고등부: 고등학생

교회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과 각 부서를 맡은 부장 선생님 그리고 설교와 생활/신앙 지도를 맡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부터는 청장년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 과정도 보완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도 확고히 가르칩니다.

유치부의 경우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오후에 독립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선생님들께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이나 이해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2시 어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의 경우 주일 오후에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며 오후 예배 후 또는 다른 날에 모임을 갖습니다.

교제 모임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친교 모임을 형성하여 다양한 주제로 교제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과거의 교제 모임에는 영어 찬송 배우기, 축구, 등산, 전도, 바둑, 사진 모임이 있었고 지금은 콰이어와 자매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의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로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신 뒤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모임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3. 교회 생활 Q&A

주보

저희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 오전 예배: 10시 55분, 주일 오후 예배: 2시

목요자매모임: 매주 목요일 10시, 금요 모임 : 금요일 저녁 8시

기도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예배 순서

오전 예배 : 찬송 1곡 ⇒ 목사 인사 ⇒ 찬송 3곡 ⇒ 대표 기도 ⇒ 광고 ⇒ 성경

낭독 ⇒ 특송 ⇒ 말씀 선포 ⇒ 찬송 1곡

오후 예배 : 찬송 3곡 ⇒ 기도 ⇒ 광고 ⇒ 간증 ⇒ 말씀 선포

축도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뒤에 축도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동일한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먹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기도문

저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원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국의 모든 침례교회들처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유물로서 기계적인 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틀리거나 오해를 일으킬 부분이 더러 있고 또 참된 믿음 고백은 각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말로 해야 하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방언

저희 교회는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록 음악/밴드

저희 교회에서는 록 음악, 랩 음악, 밴드 등이 동원되는 '경배와 찬양' 형태의 예배나 구도자 예배 등은 드리지 않습니다. 악기로는 피아노와 클래식 음악용 오케스트라 악기들만 사용합니다.²⁾

2) 교회에 비치된 <왜 안하는가?> 책자를 가져다가 읽기 바란다.

복장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분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예배 때 앞에 서야 하는 형제님들은 깨끗한 복장과 넥타이를 기본으로 하고 자매님들은 가급적이면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꾸미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이들 역시 단정하게 입혀서 데리고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형제님들이 반드시 넥타이를 해야 하고 자매님들이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단정하게 입고 오시되 예배 때 앞에 서는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³⁾

유아실(자모실과 자부실)

본당 옆의 유아실은 4살 이하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4살 이상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아실은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음식물/음료 반입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공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커피 등의 음료는 식당이나 친교실에서 드시고 예배당에 음료를 담은 컵을 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면담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당 옆의 목사실이나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도움과 안내

그 외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안내/사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및 음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무료로 모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주일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두커피 및 음료도 무료입니다. 성도 수가 크게 늘어서 성도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인들을 고용해야 할지 모르며 이 경우 최소액의 식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상세 검색에서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다.

특별 찬양 뒤 박수 자제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이 끝나면 손뼉을 치지 말고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찬양을 한 성도나 팀이 영광을 받기 쉽습니다. 예배에서 영광과 찬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찬송가 부른 뒤 아멘 안 함

원래 찬송가(대다수가 미국 및 영국 찬송가)에는 마지막에 아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멘이 모든 찬송가에 추가되었기에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찬송가를 부른 뒤 ‘아멘’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설교 및 기도 시간에 아멘 하는 것

설교나 기도에 감동이 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도 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고 예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와 특별 찬양

원래 찬양대(혹은 성가대)를 고정적으로 예배당 앞에 두는 것은 구약 시대의 풍습입니다. 특히 천주교회가 중세 시대에 타락하면서 수도사들 중심의 성가대가 구성되고 그레고리안 찬트 등의 성가대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나 구약 시대의 유산으로서의 찬양대는 신약 교회에 필요치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성가대석을 배치하고 매주 성가대 음악 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악기와 입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특히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 개인이든 그룹이든 -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기 원하면 미리 준비하고 음악 담당 형제님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헌금

우리는 신약 교회에서 자발적인 헌금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백성에게 강제로 부과된 십일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일조의 원리는 믿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신약 시대에도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만 이런 헌금 행위를 교회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회계 보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분 앞에서의 마땅한 의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에서의 보상을 생각할 때 성숙한 성도라면 자기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 복 주신

것 중에서 기꺼이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주일 예배에 헌금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누구나 예배당 뒤에 놓여 있는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예배 순서에 따로 봉헌 시간도 있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등을 위해 증명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봉투에 이름을 써서 헌금하시고 필요시 재정부에서 서류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또한 헌금 봉투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즉 선교 헌금, 교육 헌금, 소그룹 헌금, 각종 기념일 헌금, 각종 절기 헌금 등의 다른 헌금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 모임 등에서도 다른 헌금이나 모금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한정적으로 특별 목적 헌금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두어 가지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5월에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미디어 선교 헌금을 걷습니다. 11월에는 건물 헌금을 걷습니다. 또 필요시 12월에는 교회 안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사랑의 헌금을 걷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당 및 교육 시설 증개축, 특정 지역이나 개인을 위한 선교 등 필요가 생기는 경우 얼마든지 목적 헌금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특별히 목적인 바를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헌금입니다.

교회 크기

저희 교회는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 교회 규모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줄어들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합니다. 인위적으로 교회 규모를 정한 뒤 그것을 넘어서면 무조건 교회를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과 풀링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저희 교회는 자체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이를 위해 풀링(Pooling)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풀링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교회에 본인이 빌려 줄 수 있는 금액을 이자를 받지 않고 교회의 건축 재정 풀(Pool)에 빌려 줍니다. 그 뒤 약정 기한이 도래하면 교회는 원금을 성도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건축에 참여하게 하여 원하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창 캠퍼스를 건축하였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역시 풀링에 참여하셔서 미리 하신 분들이 풀링 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풀링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가정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건축을 위한 풀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대로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고후8:13-14).

회원 가입

구원받고 침례 받으신 분 중에서 저희 교회의 '믿음과 약속'(헌법)을 읽고 거기에 동의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정한 '회원 가입 필수 설교/강해 40선'⁴⁾에 교회의 '믿음과 약속'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으므로 회원이 되기 원하는 분들은 이것들을 듣고 들었음을 서명한 서류와 가입 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므로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최소한 3개월이 지나서 저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몸으로 체험하고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원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⁵⁾

그러면 회원 위원회는 특정 주일 오후에 침례를 받기 원하거나 회원이 되기 원하는 분들과 면담을 하여 구원받은 열매가 분명히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교회는 침례를 주거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행하는 새 신자 혹은 새 가족 필수 이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을 담은 '40개 필수 설교/강해'를 듣고 이에 동의하여야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원 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 설립 목적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보급과 확산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학원

신학원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성경학교(Bible Institute)입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교회 성도들입니다. 신학원은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신학교가 아니므로 교회 회원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10과목을 수강하며 많은 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지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여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
- 4) 교회에 비치된 '40개 필수 설교/강해' CD를 가져가서 듣든지 혹은 교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 상세 검색에서 '회원 가입 필수 설교/강해 40선'으로 검색해서 시청해도 된다.
 - 5) 홈페이지 상세 검색에서 '사랑침례교회 믿음과 약속(헌법, 정관)', '회원가입 안내'로 검색하면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다.

4. 교회 믿음 진술 요약

1. 성경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2.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또한 이 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뚜렷이 구분된 세 인격체' 즉 삼위일체로 존재함을 믿는다.

3.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영존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4.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같이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그 두 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로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 이후부터 모든 신자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5. 사탄과 마귀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루시퍼가 타락할 때 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를 따라 타락함으로 마귀들이 되어 사탄의 대리자요, 조력자로서 악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6. 우주의 창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의 실제 역사로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약 6,000년 전에 24시간의 하루를 6일 동안 사용하셔서 문자 그대로 그 6일 동안에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

7. 사람의 창조와 타락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다. 첫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과 무죄함을 잃어버리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게 되었다.

8. 구원과 중생과 성화

우리는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는다. 이 세상의 행위나 도덕이나 규례 준수 등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중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중생이 일생에 단 한 번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토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믿는다.

9. 교회

우리는 지역 교회가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체라고 믿는다. 지역교회의 직무 수행자로는 목사와 집사가 있다. 또한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교회에 주어진 규례라고 믿는다.

10. 성경적 분리

우리는 성경적인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성과 현대주의 교회의 배도,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부도덕, 성정이 말하는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11. 정부

우리는 개인의 자유,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법치주의에 근거한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관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12. 휴거와 재림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살아 있는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 또한 우리는 7년 환난기가 끝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을 묶어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 가두실 것이다.

13. 영원 상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 반면에 불신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 호수라고 기록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5. 교회 철학과 문화

1. 교회 비전

■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함 ■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 ■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2. 교회 목표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3. 교회 철학

교회 철학이란 교회 비전에 따라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회 운영 원칙을 말한다.

보통 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흔히 인식, 존재, 가치의 세 기준에 따라 하위 분야가 나뉜다.
2.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르는 말

성경은 세상 철학을 무가치하게 여긴다(골2:8).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철학은 위의 정의 중 첫째에 해당한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은 철학은 반대한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철학은 위의 정의 중 둘째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도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은 가정의 리더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집집마다 다르다. 어떤 가정은 교양과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예의나 도덕 및 질서 준수 등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무자비하게 남을 누르고서라도 돈, 명예, 권력 등을 획득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아이들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삶의 목표가 다르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를 보는 눈이 다르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유기체이며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모인 조직체이다. 모든 성도는 유기체의 일부로 주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 그에 반해 세상 철학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 믿는 바를 성도들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교회 철학'이라고 부른다. 가정마다 철학이 다르듯이 지역 교회 역시 리더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두는지에 따라 철학이 다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회의 목표 및 가치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4. 교회 문화

교회 문화는 교회 운영 철학에 따른 성도들의 믿음 생활양식과 열매로 규정할 수 있다.

5. 교회 철학과 문화의 구체적인 사례

5.1 첫째 비전에 근거하여 거룩함을 강조함

참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을 조절하는 근본 속성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였으며 그 결과 그분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의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사랑은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다. 사랑이라는 엔진은 아무 데나 굴러가면 무절제의 도구가 된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랑이라는 엔진을 조절하여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레일이 되므로 그것은 사랑보다 높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만족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거룩함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한다. 그 결과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함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궤도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각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으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실행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쓴다.

다음 그림은 거룩함과 믿음의 실행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즉 예배, 섬김, 교제, 교육, 선교, 의복, 언행, 음악 등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며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등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으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향에서 판단하고 치리하고 권징한다.

5.2 둘째 비전에 근거하여 자유 신약 교회를 추구함

우리 교회는 성도의 ‘영혼의 자유’(Soul liberty) 곧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 즉 자유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영혼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성도의 의무와 책임에도 힘을 쏟는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자유 교회(Free church)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의 바른 모델이라고 믿으며, 이와 같은 자유 교회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신자의 양심에 비추어, 우리가 전통적 한국식 교회의 종교적 관습에서 벗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성경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행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김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좌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형성된 이후 주어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근거하여 신약식 교회를 추구하고 운영한다. 또한 목사의 제사장화나 예배당 건물의 성전화 그리고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부과된 각종 헌물 및 규례 등을 철저히 배격한다.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희생으로 완전한 신약 시대가 열렸으므로 이제 더는 구약 시대의 형식과 계급 체제 등이 필요 없다. 이를 확실히 인식한 자유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구약 시대의 형식에 갇힌 ‘의식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비의식 예배’를 추구하며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식 교회인 천주교회에서 나온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이나 목사의 축도 등을 하지 않는다. 또한 구약 시대의 십일조, 일천 번제 등도 하지 않고 각종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특히 헌금에 관한 한 우리는 성도 개개인이 수입의 십분의 일 정도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또한 교회가 정한 특별 목적 헌금 외에는 모두 한 종류의 감사 헌금으로 드린다. 또한 헌금 당사자나 액수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또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목사가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직무 수행자의 계급화를 막기 위해 집사 및 지역 인도자 등 리더들은 종신직이 아니라 임기직으로 임명하며 특히 집사의 경우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공예배 시 대표 기도나 시작 기도, 말씀 낭독, 주의 만찬 집행 등을 리더들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능하면 여러 회원이 돌아가며 할 수 있게 한다.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음악 담당자와 상의한 뒤 특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구약식 성가대와 성가대석은 상시로 두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믿으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형식의 교회 성장을 반대한다.

5.3 셋째 비전에 근거하여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우리 교회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담은 성경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성경 공부, 아이들 교육 등에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우리는 공예배를 빼고는 개별적인 골방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통성 기도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도들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 신학원(성경 학교)을 운영한다. 신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성경 지식 증대와 성화를 위한 성경학교이다.

성도들의 모임에서 성경을 영해하기 쉬운 QT 성격의 성경 공부는 자제한다. 이런 형태의 성경 읽기는 경건 서적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문자적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며 7년 환난기 전에 교회 즉 예수님의 몸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휴거가 됨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몸이 문자적으로 휴거가 됨을 믿으며 주저 없이 이런 확신을 가르치고 선포한다. 우리는 재림의 큰 소망을 의지하며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

5.4 교회의 최우선 목적에 근거하여 구원과 성화에 힘을 쏟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을 쓴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미디어 선교에 역점을 둔다. 특히 모든 자료는 무료로 책이나 CD로 보급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분된 사람'이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여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데 힘을 쏟는다.

성도는 언행에서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성도는 자발적으로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통해 주님을 섬긴다.

성도의 성화 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위선과 가식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예' 해야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오' 해야 할 때는 '아니오' 하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체들과의 교제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우리는 온 가족이 오전 대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제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므로 통상적인 지역 모임에서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단정한 옷차림과 고상한 언어 습관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믿으며 이를 권장한다.

우리는 성도의 간증이 본인과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믿고 자발적으로 간증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5.5 상식에 근거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

우리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그래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자들은 남자들을 가르치는 직무 수행자(목사와 집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여러 현안을 논할 때 언제라도 질서 있게 발언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는 부부가 한 몸임을 믿는다. 따라서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선교사 등을 임명할 때 부부가 함께 신실하게 섬기고 일해야 함을 믿는다.

목사, 전도사, 설교자를 임명할 때에 우리는 당사자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소명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아무리 본인이 소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그 형제의 섬김, 가르침, 인도 등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이 뒤따라야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출석한 지 오래된 성도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장려하나 주인 행세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기득권이 되는 것은 경계한다.

우리는 독서가 인간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으며 특히 경건 서적 읽기를 권장한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표력, 리더십을 키워 주기 위해서 스피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는다. 또한 바른 정서의 함양을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음악회 등의 문화 행사를 갖는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랑침례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만 교회라는 독단적 자만과 우월성 그리고 배타성을 성도들에게 심어 주는 것은 큰

잘못이며 늘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세대와 국가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배치되는 동성애, 낙태,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을 반대함을 담대하게 세상에 천명한다.

6. 침례 성도들(Baptists)의 특징⁶⁾

1. 성경의 최종 권위: 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침례 성도들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으며 또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는다.

2. 자치적 지역 교회: 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침례 성도들은 지역 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主)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 기관임을 믿는다.

3. 전 성도 제사장 직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벧전2:5-9)

침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약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

4. 교회의 두 규례: 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침례 성도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 교회의 두 가지 규례임을 믿는다.

5. 개인 양심의 자유: 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3)

침례 성도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였음을 고백한다.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회원권: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 2:41-47)

침례 성도들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7. 지역 교회의 두 직분: 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후3:1-13)

침례 성도들은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는다.

6) 침례 성도들의 여덟 개 특징의 영어 제목 첫 글자를 합치면 Baptists가 된다.

8. 교회와 국가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침례 성도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믿는다.

7. 침례 성도들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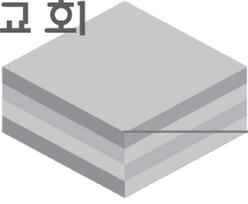
신약 교회의 설립 이후 침례 성도들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항상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침례 성도들은 시종일관 인격화된 기독교 즉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 나오는 뜨거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교회 생활에서 드러난 소박한 민주주의는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서민층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개개인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오직 성경에만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허락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성경을 통해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특징은 다른 교파나 교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유와 평등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기 위해 침례 성도들은 전력투구하였으며 또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천주교회의 유아세례와 성만찬의 화체설이라는 이단 교리와 싸우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의 선조들은 이러한 희생으로 온 인류의 자유/독립 역사를 수놓아 왔으며 그 결과 오대양 육대주의 자유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 험한 시대에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펠전', 불굴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등과 같은 침례교 선조들의 본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 침례 성도들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옥의 문들을 부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침례교회의 창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성도들(Baptists)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침례 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찰스 스펠전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륜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경륜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서서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는 최소한 네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가이시다.
2. 건물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
3. 교회가 바로 그 건물이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건물을 맡아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게 지키신다! -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무언가를 짓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짓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께 특별한 것이며 그분 자신의 소유입니다(마16:18). 이 건물은 독특합니다.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철근이나 시멘트,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살아 있는 돌들로 지어졌습니다(벧전2:5). 이 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1. 그리스도의 몸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는 건물로 묘사됩니다. 즉 교회는 살아 있는 신자들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벧전2:5). 교회는 건물로 묘사될 뿐 아니라 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1. 에베소서 1장 22-23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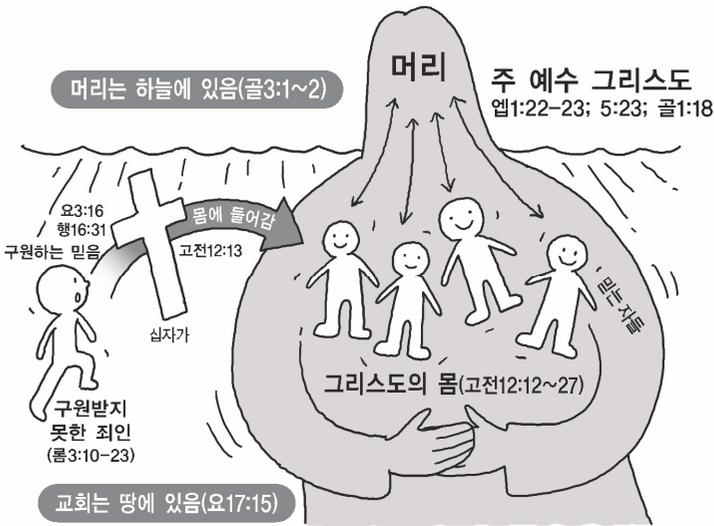
충만이니라.

2. 골로새서 1장 18절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고전12:27).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골1:18)? 교회는 살아 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유기체(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건물의 ‘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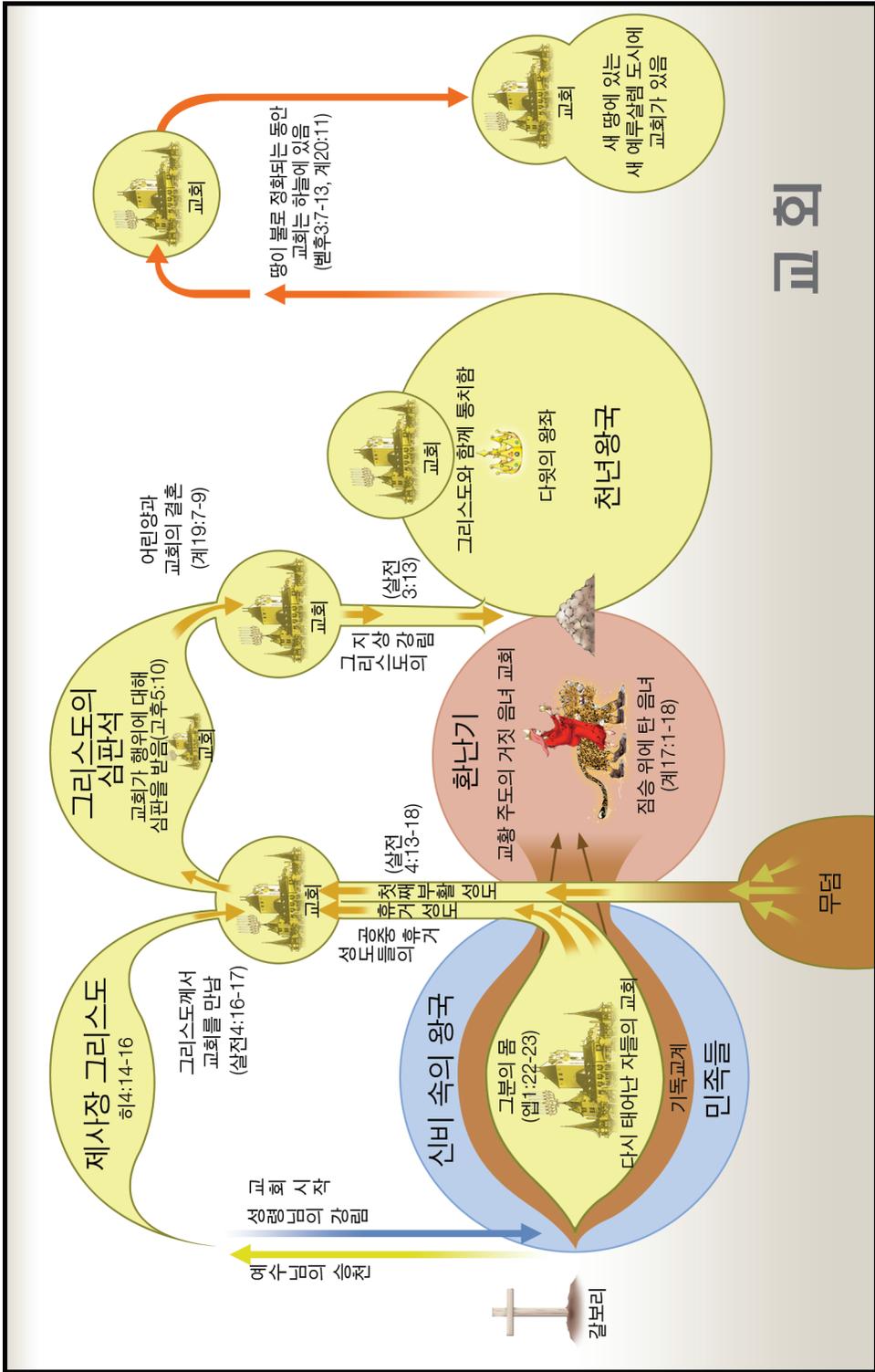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둔다(침례의 의미-고전12:13).

이 그림에서 보듯이 머리는 하늘에 있고(골3:1-2) 교회는 땅에 있습니다(요17:15). 교회의 각 지체는 머리와 다른 지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침례의 의미로 보았습니다(고전12:13).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었습니까? 오늘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교회



2. 성령 강림

교회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졌을 때 교회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등도 모두 믿는 이들이었지만 교회의 지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교회는 없었습니다.¹⁾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태동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느 특정한 날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16장을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위로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요14:16). 이 위로자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위로자'라는 단어는 '돕는 자'란 뜻이며 이 성령님은 '당신 편에서 당신을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분'을 말합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불립니다(요14:17). 또 요한복음 14:15장에는 그분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 8, 13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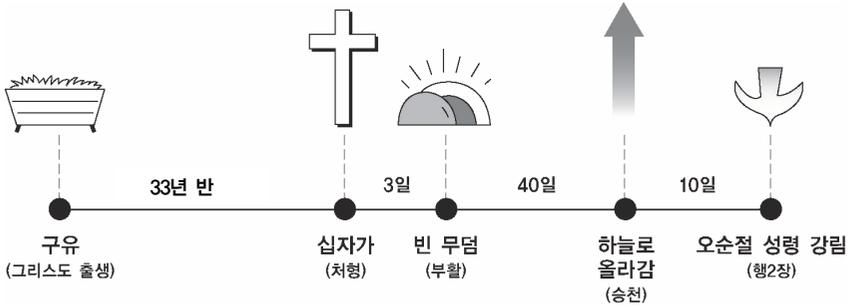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요14:16), 그들과 함께 거하고(요14:16), 그들 속에 내주하며(요14:17)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요15:26), 그들을 인도할(요16:13)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날 교회가 눈에 보이게 탄생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요14:16-17).

성령님은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특히 2장의 첫 부분). 다음 그림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간적 경로를 보여 줍니다.

1)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부터 -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부터 -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듯이 보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바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그 안에 사시게 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이것은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 불립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요1:14; 딤후3:16).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우리를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몸 -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 안에 거주하게 되신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날은 성령께서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려 오신 날이고 교회가 태동한 날입니다.²⁾

2)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사도행전 2장(오순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 시제를 쓰셨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치리를 보여 주는 마태복음 18장 15-20절을 인용하며 이때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의 시제도 모두 미래를 보여 주는 will, shall이다(마18:15-20). 그때에는 교회가 아직 없었으며 따라서 이 구절들은 미래의 어느 때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 올 때에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말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 침례가 미래에 있을 것으로 나온다(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이 침례는 미래의 일이다. 이때에 우리 주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며 며칠 뒤에 이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며칠 뒤에 - 정확히 10일 뒤 - 성령님께서 오셨다(행2). 사도행전 11장 15-17절을 보면 이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교회) 안으로 옮기신 때도 바로 이날이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우리는 그때에 교회가 눈에 드러나게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행2:47).

3. 몸(건물)에 더해짐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의 제자들(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긴 날, 첫 구성원들의 수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즉 120개의 살아 있는 벽돌로 된 교회라는 건물이 섰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였고 많은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 건물에 3,000개의 벽돌이 더해졌습니다(행2:41). 그것으로 교회 건축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 벽돌이 건물에 더해졌습니다. 즉 새로운 지체들이 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건물에 벽돌을 더하셨습니다(행5:14; 11:24).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건축 계획은 끝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4. 하나님의 신비

에베소서 3장 5-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신비에 대해 썼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신비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온 것입니다(엡3:9).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바울에게 알리셨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하셨을까요(엡3:3)?

한 소년이 주머니 안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그의 주머니에 숨겨진 그 무엇입니다. 소년이 그것을 꺼내 보이기 전에는 아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한 가지 '신비'를 갖고 계셨습니다. 즉 아무에게도 말해 주지 않은 무엇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담은 이 신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랬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계시하셨습니다(엡3:3). 오늘날 하나님은 한때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엡3:9).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신비는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엡3:6)!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의 몸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27절도 이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그 신비가 ‘이방인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골1:27).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살아 계십니다! 즉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립니다(딤후3:15). 하나님께서 거기 사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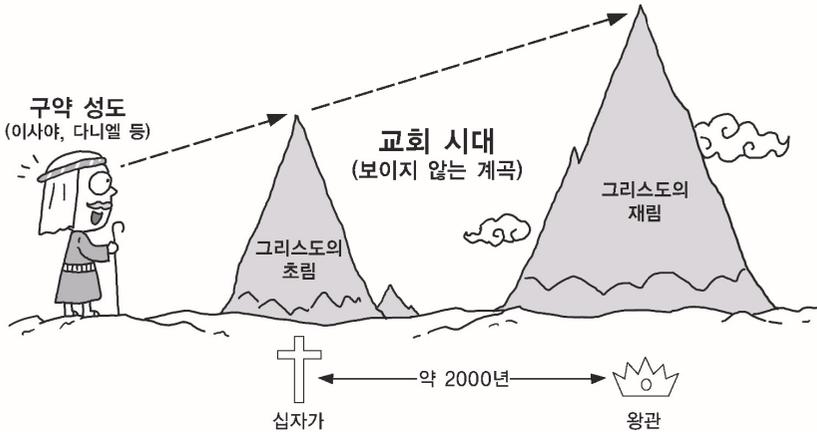
5. 구약 시대(십자가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

교회에 대한 진실은 이전의 여러 경륜에서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골1:26). 구약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거하시리라는 내용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느 날 메시아가 죽으시리라는 것은 알았습니다(시22; 사53; 단9:26). 또 메시아가 왕으로 온 땅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습니다(사9:6-7; 렘23:5-6; 단7:13-14; 미5:2).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산봉우리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처음 볼 때는 분명 하나의 산봉우리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계곡을 두고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 보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그는 두 개의 산봉우리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계곡 즉 교회 경륜은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역사(과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언(미래)이 될 것입니다. 그 중간 계곡은 교회 시대 혹은 은혜 경륜 혹은 성령 시대라 불립니다.

6.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어디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셨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보이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적 현현인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 불리는 이 특별한 장막에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성막을 채우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거하셨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난 곳은 어디이며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집 곧 성전을 채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 불리는 특별한 건물에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셨고 그곳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요2:19-21).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성막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마지막 유대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 현재 그리스도께서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성도들)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십니다(엡1:22-23).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딤후3:15)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엡2:22). 현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교회) 안에 사신다면 각 성도 안에도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고전6:19)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 사실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까? 그분이 당신 안의 거주자 즉 당신 마음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이라면 또한 마땅히 그분이 당신의 주인 즉 당신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 주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살아 있는 몸(교회)을 보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령 당신이 문 밑에서 살랑대는 고양이 꼬리를 본다면 문 건너편에는 고양이가 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 있음을 볼 때 머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있으면 머리도 있게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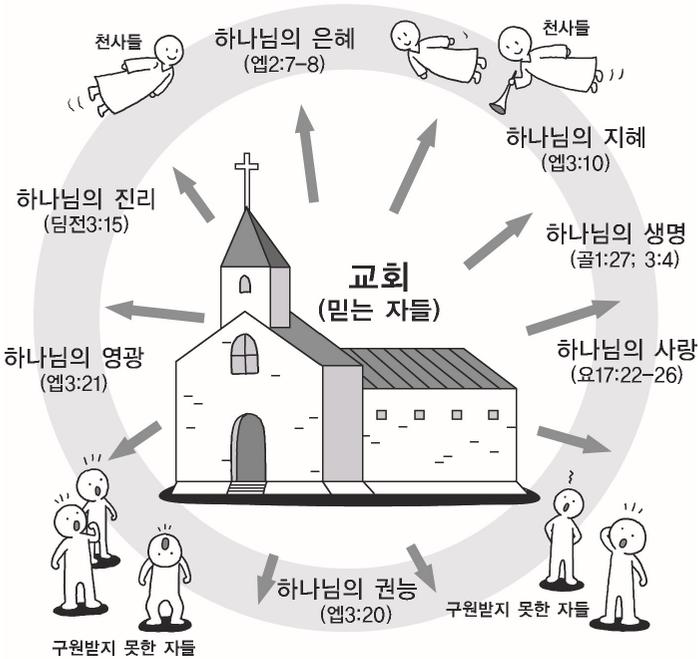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협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상태로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같이 되어야 합니다. 지체들이 건강할수록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신자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관한 한 당신은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습니까?

7. 건물이 완공되는 날

오순절 사건이 주후 30년경에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탄생한 지 거의 2,000년이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줄곧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을 더해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벽돌’이 놓이는 순간 건물은 완공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의 마지막 지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날,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흔히 ‘휴거’라고 불리며 이것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요14:3; 고전15:51-52; 살전4:13-15; 딤펴2:13).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교회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교회의 ‘첨탑’을 올리는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첨탑이 서게 되면 교회는 완성되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의 지체입니까? 구원받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은혜의 경륜인 오늘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요일2:28)?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해 오신 다음 세상에는 곧 7년 동안의 환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대해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는 하늘에 가지만(요14:1-3; 계3:10) 그렇지 않은 자는 온 땅에 닥칠 환난의 때에 들어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8. 교회에 대한 부가 설명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말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17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 모임이나 일반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2, 39절 등에서는 ‘무리’ 혹은 ‘집회’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대개 종교적 예배자들의 지상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모임도 광야의 교회라 불렸습니다(행7:38). 물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마16:18; 고전6:4).

대부분의 신약 성경 용례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뜻합니다. 또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하였고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교회 등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가 다 지역 교회(Local church)였습니다.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Universal church)³⁾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됩니다(엡1:22-23; 히12:23 등).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했을 때 이것도 전 우주적인 교회 즉 그분의 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전 우주적인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지역 교회의 모임과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큼니다. 즉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며

3) 여기서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을 뜻하는 ‘Universal’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카톨릭’(Catholic)으로 표현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말하는 ‘자기들만의 유일한 카톨릭교회’와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카톨릭’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여 서로 다른 것을 뜻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요한일서 같은 일반 서신을 영어로 ‘Catholic epistles’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결코 이런 서신들이 천주교회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지역과 출신 배경,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서신을 뜻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금 이것들은 ‘일반 서신’(General epistles)이라고 불린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역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를 뜻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주일에도 강이나 바다나 산에 가서 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보편적 교회론을 펴면서 심지어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전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치지 않거나 성경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주적 교회는 없고 오직 지역 교회만 있다고 주장합니다.⁴⁾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일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2-13).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 침례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침례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처음의 120여 명의 경우에는 구원과 성령 침례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세대주의자들은 변천기의 특징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오순절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오순절 이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취급할 수 없고 이것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변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변천기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침례와 함께 시작되었다

4) 역사를 통해 교회 문화가 정착되면서 현대에는 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이 땅의 지역 교회에 거의 100% 믿는 사람들만 존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의 교회는 여기에서 설명한 ‘성경적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 성경에 정의된 교회는 지역 교회든 전 우주적 교회든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원칙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는 데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존한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에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성도들은 초기부터 100% 믿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지역 교회를 형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천주교회 같은 제도권 교회에 의해 이단이라 불리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의 한계로 인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들도 버젓이 믿는다고 고백하며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많은 경우 지역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전 우주적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지역 교회와 전 우주적 교회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지역 교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 자체가 이미 교회였으며 따라서 성령 침례가 교회에 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모든 신약 교회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고린도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령 침례를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만을 주장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명백한 진리 즉 성령 침례를 통해 그분의 몸에 들어온다는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지역 교회를 주장하고 오순절 이전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어떤 하나에 집착하여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않으려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교리도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해야 하고 다른 교회에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을 펴기 위해 이렇게 보편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곧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먼저 오순절 날 베드로의 말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 즉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에게 - 더해졌다고 기록합니다(행2:41).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다고 기록합니다(행2:47). 즉 120여 명과 3,000명이 교회를 형성한 이후에 드디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기록된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우리는 변천기를 인정하면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침례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성경에 언급된 교회의 대부분이 지역 교회이지만 여전히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을 인정하되,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이루어야 할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지역 교회이므로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는 지역 교회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고전 12:13, 27-28; 참조 엡1:22-23; 5:30-32; 골1:18). 물 침례를 받아 교회(그분의 몸)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옵니다. 물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교회의 출생에는 반드시 성령 침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침례자 요한에 의해 처음 예언되었습니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그는 자신은 물 침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 침례가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 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한 뒤 승천하기 바로 전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여전히 성령 침례가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때까지는 변천기에 있던 120명들 - 이들은 예외였습니다 -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고전 12:13). 이때에 주님은 며칠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실제로 10일 뒤에, 오순절에 그 일이 발생하였지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며 그와 동일한 일이 오순절에 발생했음을 보여 줍니다(행11:15-16).

교회의 출생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만 가능함을 보여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23절이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 생길 수 없습니다(요7:39).

지역 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은사)이나 특권을 발휘합니다(행2:41-42; 20:17-28; 고전11:2).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롬15:26). 지역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습니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감독자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를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고전6:1).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믿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이런 협력의 분량이나 방법은 각 지역 교회의 권한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회원 문제, 정책 문제, 행정, 양육, 자선 등도 각 지역 교회가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요, 순례자요, 대사요, 증인이 됩니다(고후5:18-20; 벧전1:17).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첫째 목적은 선교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마28:18-19; 막16:15; 요17:18; 행1:8).

지역 교회의 직분에는 목사⁵⁾와 집사가 있으며 그들의 자격이나 요건 그리고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딤후3:1-13; 딤후1:5-11). 또한 교회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두 규례만 있을 뿐입니다.

5)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이 맡는 다양한 직분을 가리킨다.



중생(Regeneration) 즉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침례(Baptism)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의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가 구원하는 의식이며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성사(Sacrament)¹⁾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기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빨리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안달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침례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말들의 성경적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적인 경험이고 침례는 외적인 행동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 새로 태어남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3:3, 5) 둘째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도박꾼이나 술주정뱅이 혹은 도둑이나 난봉꾼 혹은 이교도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고 엄격한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공회 회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며 랍비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며 율법과 성경에 해박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출생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할 만한 출생 특권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에게 한 자리를 얻게 해 주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예전을 말한다. 즉 성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혼배 성사, 병자 성사, 신품 성사의 7가지 성사(이를 7성사라 부른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위키백과사전).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배치된다.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첫 번째 출생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두 번째 육적 출생에 의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천 번 만 번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육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요3:6).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요일3:10).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요8:37-44).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영적인 형제로 연합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요1:12).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간성 개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 본성의 도덕적 진화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며 선택에 의해 또는 육체적이고 도덕적이며 지적인 접합에 의해 초자연적인 남자와 여자들의 종족을 생산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며 인류의 역사와 성경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은 발달 또는 개혁이라고 불리는 ‘점진적이거나 순간적인 변형’에 의해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화 혹은 개혁이 옛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종교적인 육체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우리가 길가에 있는 썩기풀을 정원이나 온실에 가져다 놓고 보살피고 물을 주며 따뜻하게 해 준다면 아름다운 썩기풀이나 본래 것과 다른 종류의 썩기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썩기풀일 뿐입니다. 결코 썩기풀로부터 무화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마7:16)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그렇다면 새로운 출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본성을 이식하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의 교통입니다.

자연적으로 생명이 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앞서 존재한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 없는 무기적인 세계와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세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돌은 스스로 무기적 상태에서 유기적 상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유기적 세계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돌은 그 문을 열 수 없는 반면에 식물은 열

사람의 상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보소서, 내가 불뿔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 다(시51:5).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의 몸에는 첫 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므로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죄를 지으므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고 '모태 죄인'이라고 해야 맞다.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롬7:18).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을 가리켜 '자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한다(엡4:18).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2:14).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엡2:3)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따라서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7-8).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여 부패되어 있다(렘 17:9).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다(막7:21-22).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 죽은 존재이다(엡2:1).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렘13:23).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일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그를 지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수 있습니다. 식물은 그 뿌리들을 흙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돌을 부술 수 있으며 돌의 화학적인 구성 요소들을 취하여 그 요소들에 자신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 세계와 동물 세계 사이에도 문이 하나 있으며 그 문은 동물 세계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식물은 그 자체를 육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동물은 그 식물을 먹음으로써 식물적 생명에서 동물적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육적인 쪽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조각가가 대리석 조각을 취하여 살아 있는 것 같은 형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대리석이며 생명이 없는 물체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부모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의 마음이 태(어머니)가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씨를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벧전1:23)

만일 자연 세계에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씨에 생명이 없다면 어떠한 새로운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님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어떠한 새로운 출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는 있지만 회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음의 말씀을 천 번이나 듣고 읽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서 그는 이 말씀이 큰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연히 드러난 것으로 인해 화가 났고 또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으로 인해 기분이 상해 그 카드를 갈기갈기 찢고 모독적인 말을 해대며 시궁창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그 사건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기억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사업에 능력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극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에 쓰인 말들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가서 밤을 뜬눈으로 꼬박 새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력을 부여받았고 태 속에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생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 그대로 두면 그것은

자기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를 회심하게 했던 성경 구절을 기억하거나 회상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출생을 일으켰던 그 말씀의 씨앗을 움트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

만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출생의 수단과 방법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지 보여 드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세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출생의 예, 둘째는 늦뱀의 예, 셋째는 바람의 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예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둘째 예를 상고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3:14-15).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늦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민21:4-9).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려다가 낙담하게 되었고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늦뱀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아 그것을 장대에 달았는데 누구든지 늦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의 독으로부터 치유받게 된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뱀은 마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늦뱀은 마귀의 일을 저지하고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들려진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로 들려지신 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늦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위로 들렸으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들렸습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자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걸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요12:32-33)

그날 밤 예수님과의 대화는 너무도 강력해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기 위해 그분의 몸 위에 몸을 구부렸을 때 니고데모의 기억 속에 그것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의 집에 계시던 그분을 방문했을 때 그분께서 내게 설명해 주셨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네. 그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뱀을 들어 올렸듯이 자기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야말로 그분은 위로 들리셨네. 그분을 조심스레 모시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일세.”

이제 광야의 장면을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이 주는 교훈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구원받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뱀의 독의 상처를 느끼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죄의 독이 자신의 혼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 어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2.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치료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뱀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면 무지함으로 인해 멸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그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치료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치료약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 셋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약도 그것을 쓰기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만일 뱀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거절하였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의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자신의 죄들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뱀에 물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뱀뱀을 바라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 나는 뱀 조각에 대해 어떤 믿음도 가지지 않아요. 나는 파스 껌질을 해 보거나 집에 있는 약을 마셔 보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선행, 고행, 음악, 세속적인 오락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과 같이 양심의 고통을 순화시켜 주는 인공 치료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뱀뱀이 어떻게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기 전에는 그 뱀뱀과 아무런 상관도 아니할 것이요. 나는 어떻게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지 그 철학을 알고 싶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의 형상으로 된 뱀 조각으로 물린 상처를 문지르거나, 뱀 조각을 취하여 약간의 꿀과 함께 달여서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사물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단순히 장대 위에 달린 뱀뱀을 바라보는 것은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요. 나는 그것을 보기 전에 죽을 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 같은 속죄의 철학을 이해할 수 없소. 그래서 당신이 내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대신 속죄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라(요1:29).

여호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합1:13). 그러므로 누구라도 죄가 있는 존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이후로(창3:21)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없는 희생물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야만 함을 보여 준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사형각 교육으로 잘 보여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끌고 성막 앞의 제사장에게로 간다(레1:2-9).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인수하여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칼로 직접 짐승의 목을 찌른다. 그가 칼을 양의 목에 꽂는 순간 양은 비명을 지르고 피가 몸에서 튀어 나온다. 이로써 죄인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만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제물을 여러 조각 내서 번제 헌물 제단에 던져 태워야 한다. 이것을 통해 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뜨거운 지옥 불의 정죄가 있어서 불의 고통을 받아야 함을 깨닫는다. 이런 일은 또 유월절(출12)과 속죄일(레23:27-32)에도 이루어져서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흠 없는 어린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잠시 덮는 역할을 하며 예표의 기능을 했을 뿐이다(히 10:4).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히9:12). 구약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마27:51; 히6:19-20). 그분께서 단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제거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다(히10:18).

뱀에 물린 한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내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지 보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려야겠소. 만일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그 뱀을 쳐다보겠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영적인 상태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바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종교에 한번 의지해 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뱀에 물린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이웃과 비교해 보면서 “내 상처는 내 이웃의 것만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가 살아 있는 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웃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그들만큼 나쁘지 않아. 만일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될 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치료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치유하는 것은 뱀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과 교회와 장식물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떼 내어 갈보리의 십자가에 고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행4:12). 뱀을 바라보기를 거절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듯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도 죽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살후1:7-10)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바람의 비유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요3:8).

당신은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그 자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무언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는 것뿐입니다. 바람에 의해 나무들과 먼지 구름들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람이 있음과 바람의 영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 것은 그분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영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출생 표시가 있습니다.

1.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롬8:16; 요일 5:10).
2.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합니다(요일3:24).
3.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요일3:14).
4.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요일5:4).
5.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롬8:14).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성향과 기질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소유할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언어를 말할 것이고 하늘의 일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의 음식은 더 이상 소설이나 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노래를 소유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더 이상 가곡 형태와 음유적인 가락이 아닌 거룩한 음악입니다. 그는 새로운 교제를 추구할 것입니다. 예전의 교제들 즉 세상적인 교제들은 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추구할 것입니다.

II. 침례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출생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내적인 경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침례의 의미와 목적을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침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을 상징으로 보여 주는 외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구절의 물은 침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생과 물에 의한 침례 두 개가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이라는 단어는 물에 의한 침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²⁾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약1:18).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은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벧전1:23)

침례는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행8:36-37). 그러므로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책임 있는 나이에 이르러 믿고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게 성숙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침례를 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침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3-5).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 15:1-4)

여기서 우리는 간결하게 정리된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기록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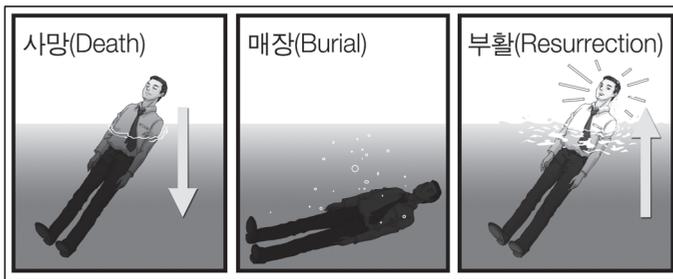
2) 요한복음 3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을 육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신다. 따라서 여기의 물은 육신적인 출산 즉 양수와 함께 아이가 모태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상징으로 보여 주고 오직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의 침례만 유일하고 완전하게 그것들을 상징으로 보여 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침례는 믿는 자가 옛 생활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침례 받는 장소에서 물 무덤 속에 묻혔다가 부활한 생명으로 행보하기 위해 물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침례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그 대상자를 뒤로 눕혀서 한 번 물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엮어진 상태로 사람을 묻지 않으며 또한 장례를 세 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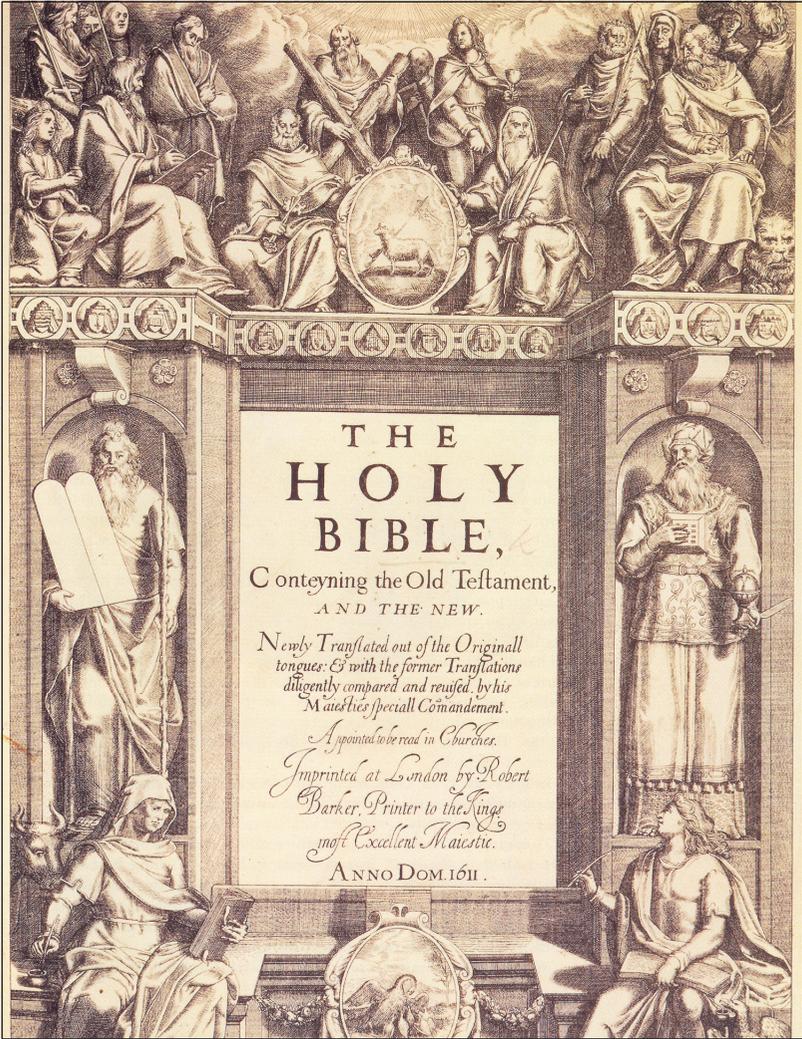
셋째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장사되어 부활한 것을 상징합니다. 즉 침례는 그분과 우리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과 침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집행인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행하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출생에 의해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효과를 발휘한 것 즉 구원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출생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떠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구원자께서 침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막16:15-16). 둘째,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행8:36-37; 16:14-15, 27-33). 셋째,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믿는 자들의 몸 즉 교회 모임과 연결해야 하며 그러한 연결의 문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입니다(행2:41-42).

3) 어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삼위일체에 따라 침례 대상자를 세 번 물속으로 넣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행한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표지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툰스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4쪽, 1989).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는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위치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 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 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7~8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8절을 둘로 나누어 8절 전반부를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마제스티에디션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CHARITY BAPTIST CHURCH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엡1:23)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곱곰이 생각하라. (빌4:8)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데도.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22:21-22)

KING JAMES BIBLE 1611
